

TV 책 방송 당위와 공급의 간극

공익과 오락성이 요구되는 현실

“지난번 우연히 방송을 봤습니다. 책에 대해 얘기하는 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잠깐 앉았다가 끝까지 다보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책까지 주문했습니다. 책 한 권을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황금시간대에 방송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TV, 책을 말하다〉 시청자 게시판. ID : naxian)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KBS 자료실 제공

2001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KBS 1TV 〈TV, 책을 말하다〉는 화요일 밤 12시 35분에 시작하는 50분짜리 교양 프로그램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유일하게 온전히 ‘책’을 주제로 진행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TV, 책을 말하다〉는 ‘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찾고, 전 국민 책읽기 운동과 토론하는 문화에 앞장서기 위함’을 기획 목적으로 삼고 있다.

마니아 시청자 거느린 정통 책 방송

4명의 감독이 제작 책임을 맡고 있는 〈TV, 책을 말하다〉는 시청률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밤 10시에 방영됐다. 그러나 동 시간대 타 프로그램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영시간이 밤 11시에서 다시 12시로 밀려나 현재 시간대를 고수하게 됐다. 방송편성 시간을 두고 프로그램의 질과 가치를 논하는 방송계의 생리상 교양 프로그램인 〈TV, 책을 말하다〉는 시청률 소외 지역으로 밀려난 셈이다. 그러나 책을 사랑하는 골수 시청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프로그램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TV, 책을 말하다〉의 노윤구 프로듀서는 “편성시간이 늦어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대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윤도현의 러브레터〉 〈낭독의 발견〉)과 같이 시청률보다는 알찬 마니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TV와 VOD 다시보기 서비스 등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TV 시청률 집계 의미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TV, 책을 말하다〉는 젊은 시청자 층이 두터워지면서 KBS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클릭율도 높아졌다.

시청자 관심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졌다.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패널들의 다각적 분석과 토론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금년 봄부터 신간 안내 코너를 강화했다. 50분간 2~3권의 책으로 전문 패널들과 시청자들의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전문가들이 시청자에게 권할 만한 책을 소개해 기존과 차별화된 변화를 모색했다. 노윤구 프로듀서는 “초기 한 권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전문가적인 수준이었고 또 시청자 타깃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책에 대한 담론을 굳이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면서 금년에 실시한 포맷의 변화를 “책의 가치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대중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라고 전했다.



KBS 1TV <TV, 책을 말하다>

시청자를 새로운 독자로 유도하는 공익 프로그램

책의 대중화에 기여한 프로그램으로는 공익성과 오락성을 표방한 MBC TV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를 꼽을 수 있다. 매월 한 권의 도서를 선정, 시청자들의 독후감을 소개하고 채택된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프로는 "독서시장 규모를 키우고 10~20대 젊은 독자를 책으로 다시 끌어들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특정 도서를 간접 홍보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 방영 1년여 만에 포맷을 바꿨다. <느낌표>는 1년 동안 선정도서 출판사에서 기부한 60억 원 기부금을 공익 사업에 투자하는 의미로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코너를 신설, 전국에 10여 개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했다.

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논할 수 있는 적합한 패널 섭외의 어려움과 간접 광고 혐의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점 등 책 관련 프로그램은 제작의 어려움이 따른다.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시청자들은 점차 인포테인먼트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책과 관련한 소재를 발굴해 흥미롭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방송 프로그램은 책만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신문의 북 섹션과 같이 인포테인먼트 형식의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BS TV <낭독의 발견>은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적인 글과 노랫말, 편지글, 사진집 등 다양한 텍스트를 낭독의 대상으로 삼아 청각 요소를 가미해 지루함을 없앴다는 평가를 받는다.

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장기 방영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한 독서운동가는 "매체 특성상 한편의 책을 말하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고 제한적이고 고상한 방식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재미요소를 담은 아이디어 개발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박웅진 선임연구원은 책 방송 프로그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시청률에 민감한 방송 현실 상 상업적인 이윤이 남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는 없다"면서도 "젊은 세대들이 방송이 가진 오락적 영향력 때문에 독서를 등한시하지만 오히려 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하면 독서 권장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인들에게 TV 방송은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와같이 TV 방송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책의 가치와 건강한 독서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책의 엄숙주의에서 탈피하되 책 속에 담긴 건강한 지식의 힘을 전달하는, 정보와 오락의 균형을 맞춘 좋은 책 방송 제작 현실이 요원하다. **주필**